

## 학교 문법 품사 설정 및 용어 결정의 과정과 문제점\*

성 낙 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차례

1. 머리말
2. ‘학교 문법’의 품사와 용어 설정의 과정과 문제점
  - 2.1. ‘학교 문법’의 품사 설정의 과정과 문제점
  - 2.2. 용어의 결정 과정과 문제점
3. 맺는 말

### 1. 머리말

본고는 현재 우리나라 학교 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법 용어와 품사의 설정 과정을 살펴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해 보려는 데 목적을 둔다<sup>1)</sup>.

---

\*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10년 기성회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1) 이에 대하여는 많은 부분이 이미 알려진 것이나, 지금 그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이른바 ‘학교 문법’의 품사와 용어의 결정이 된 지가 아주 오래 되었고, 학문의 발전도 이루어지고, 세대도 바뀌었으며, 사회·경제·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진 지금 8차 교과과정에 의한 ‘화법과 문법’교과서가 새로 집필될 것이므로 새로이 이 문제를 다룰 시점에 와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처음 품사 설정이 나타나게 된 것은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였다.(김민수 1960:28-29, 김석득 1983:184, 고영근 2005)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조선말에 문법서를 낸 유길준(1909)으로부터<sup>2)</sup> 현재 쓰이고 있는, ‘교육 인적 자원부’(2002)에서 펴낸 <문법>에 이르기까지 학교 문법에 쓰인 용어와 품사 설정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품사의 설정이나 문법 용어가 서양 문법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한자어로 직접 번역하였거나 일본어나 중국어로 된 것을 다시 번역하였기 때문이다.(김민수 1960:146-155)

현재 쓰고 있는 문법에서의 품사 설정과 명칭은 1963년에 제시된 문교부의 편수 자료에 따르고 있으며, 용어도 마찬가지다.(문교부1964) 그러나 품사 명칭이나 문법 용어는 그 원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른바 문교부의 문법 통일 방안은 자체적으로도 50여 년이 지난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1985년에 나온 이른바 통합 문법(문교부 1985)은 그 전에 쓰여졌던 문법서들과는 내용에 있어서나 용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품사 설정이나 용어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 감각에 맞지 않는다.

국가에서는 제8차 교육과정에서 국어 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독서’와 ‘문법’을 합친다고 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 번부터는 품사 설정이나 용어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주어, 집필자들의 견해와 이론에 맞게 집필하는 것이 좋으며, 교과서의 선택은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와 피교육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 글을 쓴다. 만약 검인정 교과서에서 통과된 것일지라도 현장 교육에서 맞지 않아 선택이 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

2) 유길준(1909)이 쓴 <대한문전>과 같은 이름의 최광옥(1908)의 <대한문전>이 있어, 누가 쓴 것이 원전이나 하는 문제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전자를 대상으로 기술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민수(1960:31), 김석득(1983:186-228) 참조.

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그런 점에서 역대의 문법가들이 기술하였던 품사 설정과 용어 사용에 대하여 살펴 보고, 그것이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란히 사용되다가 (김석득 2000:164), 1963년에 국가적인 과업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정 내용은 무엇이며,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 2. ‘학교 문법’의 품사와 용어 설정의 과정과 문제점

‘학교 문법’의 품사 설정은, ‘학문 문법’에서 첨가어인 한국어의 특성 각 학자들의 이론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하나로 통일하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고유어와 한자어가 혼재하고 있는 한국어에서 용어의 제정도 학자들의 견해가 달라 문제가 되었다.

### 2.1. ‘학교 문법’의 품사 설정의 과정과 문제점

‘학교 문법’의 품사 설정 문제는 광복 이후의 문제로, 그 전에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으나,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복이 되었고,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서가 집필되었기 때문에 각각 체제가 다른 교과서가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1958년도에 처음으로 통일 문제가 제기되었다.(한글학회 1971:366) 그 후 여러 과정을 거쳐 1963년 당시 문교부에서 이른바 ‘학교 문법 통일 전문 위원회’를 만들어 통일안을 만들었다.(한글학회 1971:367-417) 그러므로 이에 이르기 전까지 한국어에 대한 품사 설정의 역사를 먼저 고찰해 보아야 그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

### 2.1.1. 학교 문법 설정 과정

품사설정은 일찍이 서양에서 시작되어, 라틴어 문법에서 완성되었다고 한다. 라틴어 문전에서의 품사는 8품사로서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김민수 1960:154-155)

- (1) nomen, verbum, participium, articulus, pronomen, praepositio, adverbium, conunctio

이에 따라 인구어는 대체적으로 8품사, 혹은 9 품사가 되었다. 한국어를 최초로 품사 분류한 언더우드(김민수 1960:155)는 다음과 같이 8 품사로 분류하였다.

- (2) noun, pronoun, numeral, postposition, verb, adjective, adverb, conjunction

최광옥(1908)은 다음과 같이 품사를 분류하였다.(김석득 1983:190-193)

- (3)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後詞, 接續詞, 感歎詞

유길준(1895)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김민수 1960:155)

- (4) 名詞(일흠말), 代名詞(더신일흠말), 動詞(움직이논말), 形容詞(형용호논말),  
副詞(붓치논말), 後詞(토다논말), 接續詞(연잇논말), 感歎詞(감탄호논말)

그 후 유길준(1905)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김석득 1983:213)

- (5) 名詞, 代名詞, 動詞, 助動詞, 形容詞, 接續詞, 添附詞, 感動詞

김희상(1909)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김민수 1960:156)

(6)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感歎詞, 吐

유길준(1908) 이후 한국어 문법서들의 품사 분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문교부 1962:4)

- (7) I. 토와 어미 [끝] 를 각각 다 독립된 품사 [씨] 로 세운 문법 체계 —— 제Ⅰ유형  
 II. 토는 독립 품사로 세우고, 어미는 독립 품사로 세우지 않은 문법 체계 —— 제Ⅱ유형  
 III. 토나 어미를 각각 다 독립 품사로 세우지 않은 문법 체계 —— 제Ⅲ유형

위에서 말한 ‘Ⅰ 유형’<sup>3)</sup>에 속하는 예로서, 주시경(1910:28, 1913:32)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sup>4)</sup>

(8) 임(지금의 명사), 엇(지금의 형용사), 움(지금의 동사), 꺄(지금의 조사), 잇(지금의 연결접미사), 언(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억(지금의 부사, 용언의 부사형), 놀(지금의 감탄사), 꺄(지금의 종결접미사)

이와 같은 이른바 분석주의 품사 분류 방법을 따른 이 중에서 김윤경(1948)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김석득 1983:394)

(9) 임씨(名詞), 언씨(形容詞), 움씨(動詞), 꺄씨(助詞), 잇씨(接續詞), 맺씨(終止詞), 언씨(冠詞), 억씨(副詞), 늑씨(感歎詞)

3) 이를 분석주의 품사 분류 체계라고도 한다.(김석득 1983:228-318) 이 체계에 속하는 이로는 주시경 외에 김윤경, 박승빈 등 다수가 있다.(김민수 1960:156-158)

4) (        ) 안은 필자.

위에서 말한 ‘II 유형’<sup>5)</sup>에 속하는 예로서 최현배(1937)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sup>6)</sup>

- (10) 이름씨(名詞), 대이름씨(代名詞), 셈씨(數詞), 움직씨(動詞), 어떻씨(形容詞), 잡음씨(指定詞), 어떤씨(冠形詞), 어찌씨(副詞), 느낌씨(感歎詞), 토씨(助詞)

위에서 말한 ‘III 유형’<sup>7)</sup>으로 정열모(1946)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11)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을 해방 직후에 다음과 같이 정리한 예가 있다.  
(장하일 1947:7)

- (12) 씨가름 견줄<sup>8)</sup>

주시경	이상춘	최현배	정열모	이 책(*장하일)
임	名詞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名詞	임자씨

5) 이를 준종합적 품사 분류 체계라고도 한다.(김석득 1983:334-356) 이에 속하는 이로는 최현배 외에 박창해, 박태윤, 정인승, 이희승, 이인모 등이 있다.(김민수 1960:158-161)

6) 최현배의 <우리말본>은 1935년에 완성하였고, 1937년에 연희전문대학 출판부에서 초판을 냈는데, 여기서의 품사 이름은 그 때 붙인 것이며, 1955에 나온 ‘갑고 고친 판’에서는 1949년에 문교부에서 제정한 술어를 따라 ‘어떻씨’는 ‘그림씨’, ‘어떤씨’는 ‘매김씨’로 바꾸었다.(최현배 1947:19-117, 1950: 48-86, 김석득 2000:164-165)

7) 이를 종합주의 품사 분류 체계라고도 한다.(김석득 1983:400-424) 이에 속하는 이로는 정열모 외에 장하일, 이승녕, 김민수, 이강노 등이 있다.(김민수 1960:161)

8) \*표는 필자. 이 표에서 장하일(1947)은 용어 말고는 정열모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움	動詞	움직씨	動詞	풀이씨
엇	形容詞	어떻씨		
언		어떤씨	冠形詞	어떤씨
억	副詞	어찌씨	副詞	어찌씨
놀	感歎詞	느낌씨	感歎詞	느낌씨
것 곳 잇	토씨	토씨 잡음씨 (씨끝) (씨끝)	(씨끝)	(씨끝)

1962년까지의 품사 분류의 역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문교부1962:5)

(12) 제1기=성립기 22년 [1908—1930]

제1유형의 문법 체계로 일관한 동안.

제2기=만성기 16년 [1930—1946]

제II유형이 새로 나타나서 제I유형과 공존한 동안.

제3기=부흥기 16년 [1946—현재]

제III유형이 새로 나타나서 제II、·제I유형이 다 같이 공존한 동안.

제3기에 처한 당시, 문교부의 인정필로 출판된 중·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과서는 도합 8종인데, 그것만을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문교부 1962:5-6)

(13) 제I유형 <1종류>

김윤경 : 중등 나라 말본 1권

고등 나라 말본 2권

제II유형 <3종류>

최현배 : 중등 말본 3권

고등 말본 2권

정인승 : 표준 중등 말본 1권

표준 고등 말본 1권

이희승 : 새 중등 문법 1권

새 고등 문법 1권

제Ⅲ유형 <4종류>

장하일 : 표준 말본 1권

이승녕 : 중등 국어 문법 1권

고등 국어 문법 1권

최태호 : 중학 말본 3권

김민수·남광우·유창돈·허웅 : 새 중학 문법 1권

새 고교 문법 1권

이와 같은 기존 8종의 학교 문법서와 통일된 안의 품사 분류의 차이점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문교부 1963 7)

(14) <품사 분류표 Ⅱ>9)

책명	품사 설정수 저자	구분	나라	나·너	하나	가(다)	회(다)	있(다)	(가)시
			이순신 조선	여기 이리	둘·셋 첫째	받(다) 먹(다)	높(다) 많(다)	없(다)	(회)겠 먹(히)
고등 말본	최현배	10	이름씨	대이름 씨	셈씨	움직씨	그림씨	(그림)	(씨끝)
고등 나라말본	김윤경	9	이름씨	(이름)	(이름)	움직씨	그림씨		(움직)
표준 고등말본	정인승	7	이름씨	(이름)	(이름)	움직씨	그림씨		(끝)
새 고등문법	이희승	10	명사	대명사	(대명)	동사	형용사	존재사	[어미]
고등 국어문법	이승녕	8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형)	[어미]

9) \*표에는 원문에 ‘접속사’로 되어 있으나, 필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워져 있음. 필자의 견해로는 부사(접속부사)가 맞음.



새 고교문법	김·남· 유·허	7	명사	(명)	(명)	동사	형용사	(형)	[어미]
중학말본	최태호	7	명사	대명사	(대명)	동사	형용사		[토]
표준말본	장하일	5	임자씨	(임자)	(임자)	풀이씨	(풀이)	(풀이)	[토]

(가)다 (히)오 (차)나	(가)고 (히)며 (차)지	(그)가 (나)를 (이)에	(그)와 (물)과	-이다	모든 새 무슨	매우 빨리 자못	또 그리고 및	아아 아이구 여보
[씨끝]	[씨끝]	토씨	(토)	잡음씨	매김씨	어찌씨	(어찌)	느낌씨
맺음씨	(것) (이음)	것씨	이음씨	(맺)	매김씨	어찌씨	(어찌)	느낌씨
[끝]	[끝]	토씨	(토)	(토)	매김씨	어찌씨	(어찌)	느낌씨
[어미]	[어미]	조사	(조)	[어미]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어미]	[어미]	[어미]	[어미]	[어미]	관형사	부사	(부)	감탄사
[어미]	[어미]	[토]	[토]	[토]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토]	[토]	[토]	[토]	[토]	관형사	부사	*	감탄사
[토]	[토]	[토]	[토]	[토]	매김씨	어찌씨	(어찌)	느낌씨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sup>10)</sup> 당시 문교부에서 시행한 이른바 ‘학교 문법 통일을 위한 전문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문교부 1964:2)

- (15) “중·고등 학교에서 지도하는 국어 문법의 체계와 용어를 통일할 목적으로 문교부 국어과 교육 과정 심의회가 중심이 되어 1963년 3월 18일부터 동년 6월 18일 사이에 여러 차례의 토의를 거듭한 끝에 그 통일안이 7월 25일에 확정 공포되었다. 심의 기관인 국어과 교육 과정 심의회는 1963년 4월 8일 학교 문법 통일을 위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16명으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는 4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사이에 12 차례의 회의를 거듭하여 숙의한 끝에 문법 체계의 통일안으

10) 이른바 ‘학교 문법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는 한글학회(1971:365-377)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로 품사 분류를 아홉으로 할 것과, 문법 용어 통일안으로 순 우리말로 된 것과 한자음으로 된 말을 절충하는 원칙 밑에 새로운 문법 용어표가 작성되었다. 이 성안은 국어과 교육 과정 심의회로 보고된 다음, 용어에 대하여 계통성이 유지되도록 일부 모순점이 시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본 통일안은 1949년 이래 두 갈래로 사용되어 오던 용어와 여러 갈래로 지도하던 품사 분류를 단일화하여, 교과서 개편과 함께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될 것이나, 실시 전까지는 이를 참고로 하여 지도하기 바란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확정된 품사는 다음과 같다.(문교부 1964:3-6)

- (16) “통일안으로서 결정된 문법 체계상의 품사 분류는 ① 명사, ② 대명사, ③ 수사, ④ 동사, ⑤ 형용사, ⑥ 관형사, ⑦ 부사, ⑧ 감탄사, ⑨ 조사 등 아홉 가지다.”

그 전에 나왔던 검인정 교과서와의 관련은 다음과 같다.<sup>11)</sup>

(17) 품사 분류표I

A (최현배)	B (장하일)	C (김윤경)	D (정인승)	E (이희승)	F (이승녕)	G (최태호)	H (김·남·유·하)	통일안
이름씨	임자씨	이름씨	이름씨	명사	명사	명사	명사	명사
대이름씨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
셈씨					수사			수사
토씨 (잡음씨)	(토)	것씨 이음씨 (맺음씨)	토씨	조사	(어미)	(토)	(토)	조사
움직씨	풀이씨	움직씨	움직씨	동사	동사	동사	동사	동사

11) 원문에는 저자의 이름이 없으나, 필자가 다른 자료를 참고로 하여 ( ) 안에 넣었음.(문교부 1964:6)

그림씨		그림씨	그림씨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존재사				
잡음씨 (끝)	(토)	(것씨) (이음씨) 맺음씨	토씨 (끝)	(어미)	(어미)	(토)	(토) (어미)	(어미)
매김씨	매김씨	매김씨	매김씨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관형사
어찌씨	어찌씨	어찌씨	어찌씨	부사	부사	부사	부사	부사
				접속사			접속사	
느낌씨	느낌씨	느낌씨	느낌씨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
10개	5개	9개	8개	10개	8개	7개	7개	9개

전문 위원회의 성격은 다음과 같았다.(문교부 1963ㄴ:1-4)

(18) ㄱ. 1. 전문 위원회의 성격

(1) 관계 규정(교육 과정 심의회 규정 제11조)

1. 각 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전문 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위촉하고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 받은 사항의 자료 수집, 조사 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여 당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전문 위원회의 임무

- (1) 학교 문법에 필요한 간편하고 합리적인 품사 분류의 방안을 연구한다.
- (2) 현재 두 갈래로 되어 있는 문법 용어를 외국어 문법과의 관련도 고려하여 통일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3. 전문 위원회의 운영

- (1) 전문 위원회는 위촉 받은 사항을 4 월 말일까지 성안하여 국어과 교육과정 심의 위원회에 회부한다.
- (2) 4 월 말까지 성안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심의는 다시 국어과 교

육과정 심의회로 환원된다.

- (3) 전문 위원회의 운영은 전문위원회 자체에서 결정 진행하고, 문교부가 협조한다.

#### ㄴ. “전문 위원회 구성

제4차 국어과 교육 과정 심의회 의결(\*1963년 4월 8일:필자)에 따라 아래와 같은 원칙에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함.

##### (1) 구성 원칙

- 가. 문법 교과서 저자는 1책당 1명의 대표를 선출 참가시킨다.(8명)
- 나. 저자 이외의 국어 교육 관계자를 저자와 동수로 8명 선출한다.
- 다. 전항의 8명은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선출케 한다.

##### (2) 전형 위원

- 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박 창해(연세대 교수) 이 응백(서울 사대교수) 조 문제(서울 교대 교수)를 전형 위원으로 지명함.

##### (3) 전문 위원 명단

- 가. 저자측(자동 케이스)
  - 최 현배, 이 희승, 김 윤경, 정 인승, 이 승녕,(도미중) <김민수, 허웅, 남 광우, 유창돈> 중 1명, 장 하일, 최 태호
- 나. 국어 교육 관계자(전형 위원이 선출)
  - 유 재한(한글학회) 박 창해(연세대)
  - 윤 태영(한성 교교) 이 훈중(청량 중교)
  - 이 응백(서울 사대) 김 형규(서울 사대)
  - 강 윤호(이화여대) 이 희복(문교부)

이상 국어 교육 관계자(이하 비저자라 함)는 한자어나 고유어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교육 연구 단체, 국어 연구 단체를 고려하여 안배한 결과임.”

그러나 그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다. 그 과정을 문교부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본고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sup>12)</sup>

‘전문위원회 경과’에 나타난 자료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문교부 1963:5-32)

## (19)

차례	일정	토의 사항	결정 사항	비 고
2	4.19	단어의 개념 품사 분류(토와 어미의 독립성 문제)	○ 다음 회의 벽두에 결정하기로 한다.	12명 참가
3	4.20	표결 방법 위원 인선 문제 논란 토와 어미의 독립성 문제	○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되, 과반 수 이상을 얻으면 채택,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과 과정 심의회에 그대로 보고한다. I. 토는 독립품사로 보고, 어미는 독립품사로 보지 않는다. II. 토와 어미를 다 독립품사로 본다. III. 토와 어미를 다 독립품사로 보지 않는다. 채석 10 I안 8표 II안 0표 III안 1표 기권 1표로 I안을 채택 ○ 토는 독립품사로 보고, 어미는 독립품사로 보지 않는다. ○ 공통적인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12명 참가
4	4.24	“이다”의 독립성 문제	I. 낱말이다. II. 낱말이 아니다. 채석 11 I 안 5표 II 안 6표로 II 이 채택 ○ “이다”는 낱말로 인정하지 않는다.	14명 참가

- 12) 품사 설정이나 중요한 내용마다 전문 위원들이 의견 개진을 하고, 토의 한 다음 표결에 붙인 것으로 필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타나 있음.

5	4.25	<p>품사 설정 문제(명사 대명사, 수사의 설정 여부)</p> <p>존재사의 설정문제</p>	<p>I. 명사만 설정하고 대명사, 수사는 명사의 하위분류로. II. 명사, 대명사만을 설정하고, 수사는 대명사의 하위분류로. III. 명사 대명사, 수사를 각각 독립품사로 설정한다.</p> <p>재석 10</p> <p>I 안 3표 II 안 3표 III 안 4표</p> <p>I 안과 II 안 재투표</p> <p>I 안 5표 II 안 4표 기권 1표</p> <p>I 안과 III 안 재투표</p> <p>I 안 4표 III 안 6표로 III안 채택</p> <p>○ 명사 대명사 수사를 각각 독립품사로 결정한다. ○ 존재사 인정 “가” 불인정 “부”</p> <p>재석 9</p> <p>가 2표 부 7표로 부결</p> <p>○ 존재사는 설정하지 않는다.</p>	15명 참가
6	4.30	접속사의 설정문제	<p>I 설정하지 않는다. II 설정한다.</p> <p>I 안 8표</p>	15명 참석

			<p>II 안 6표로 I 안이 채택</p> <p>○접속사는 설정하지 않는다.</p>	
7	5.1	<p>성분론 용어 중 우선 토의 문제</p> <p>용어 선택 문제</p>	<p>I 문장 성분 우선 토의</p> <p>II. 문장 성분 · 종류 포함 우선 토의</p> <p>III 용어 우선 토의</p> <p>I, II, III 안 중 III 안을 채택</p> <p>○용어를 우선 토의한다.</p> <p>I 양자 택일</p> <p>II. 절충</p> <p>I 안 6표, II 안 7표로 II 안 채택</p> <p>○용어의 절충은 심의 제정한다.</p>	13명 참석
8	5.3	<p>용어의 분류문제</p> <p>절충방법(심의원칙)</p>	<p>분류를 먼저 하자는 동의 부결, 일단 보류한다.</p> <p>○a 통일된 술어는 계통성을 유지한다.</p> <p>b 공통 술어는 다음에 토의한다.</p> <p>c 일반 술어는 정하지 아니한다.</p> <p>d 주로 외국 문법에만 쓰이는 용어는 한자말 원칙으로 한다.</p> <p>e. 세부 용어는 정하지 아니한다.</p> <p>f. 주로 국어 문법에만 쓰이는 용어는 우리말 원칙으로 한다.</p>	16명 참가
10	5.8	<p>절충방안 문제</p> <p>용어의 소속문제 토의</p>	<p>○소위원회에서 용어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용어</li> <li>2. 세부용어</li> <li>3. 국문법용어</li> <li>4. 외국문법용어</li> <li>5. 공통용어 등으로 분류 보고</li> </ol>	
11	5.10	<p>용어의 소속 문제 토의.</p> <p>한자어 고유어의 이 ·</p>	<p>○품사, 말소리, 접사 및 기타, 월, 월점으로 분류하여 표결 택일한</p>	16명 참석 품사표결

		불리(利・不利)에 대한 토의 공통술어의 절충 방법	<p>다(재석 15 찬8, 부7표)</p> <p>재석 15</p> <p>① 품사 한자어 8표(채택) 고유어 7표</p> <p>재석 11</p> <p>② 말소리 한자어 1표 고유어 7 기권 3으로 고유어로 한다.</p> <p>③ 접사와 기타 한자어 4표 고유어 5표 기권 2표로 재투표</p> <p>한자어 3표 고유어 6표 기권 2표로 고유어로 한다.</p> <p>④ 월 한자 6표 고유 3표 기권 2표로 한자어로 한다.</p> <p>⑤ 월점 한자어 1표 고유어 7표 기권 3표로 고유어로 한다.</p>	후에 4위원 퇴장(최현 배 김윤경 정인승 유제한)
12	5.22	절충상의 모순에 대한 문제	<p>○토의 결정은 전번 회의로 일반 락짓고 모순이 있다면 사무적으 로 지적하여 그대로 교육과정 심의회에 보고한다.</p>	10명 참석



우리는 이 과정에서 품사의 분류를 이른바 준종합적 방법을 따르기로 했고, 세부적인 품사 설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9 품사로 결정하였으며, 품사 이름은 한자어로 하기로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1.2. 품사 설정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많은 논쟁이 되었던 각 학자들의 다른 견해를 ‘전문 위원회’에서 표결에 의하여 대부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다른 것은 그들의 이론과 소신에 의하여 당연한 것인데, 몇 명의 ‘전문 위원’들에 의하여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다.

둘째, 어떤 학자들은 그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하여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최현배 1999:240-241)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셋째, ‘이다’에 대한 품사 자격의 문제는 그 당시에도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듯한데,(최현배 254-265) 한 표 차로 인정받지 못하여, 오늘날까지 ‘서술격 조사’라는 타당치 않은 이름으로 한국어의 특질과 ‘이다’의 존재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넷째, 그 후 언어학과 국어학의 발전으로 많은 한국어의 문제점들이 연구되어 그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만큼 발전했으므로, 이제는 학교 문법의 품사 문제에 대하여 재론해 볼 여지가 있다.

## 2.2. 용어의 결정 과정과 문제점

학교 문법 용어 통일의 결정은 (19)의 표에서 나온 것과 같다. 다만, 여기서는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문교부에서 정하였다.

2.2.1. 용어의 결정 과정

학교 문법에서 사용하던 용어는 위에서 살펴 본 품사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 즉 품사의 이름이 고유어이면, 다른 문법 용어도 고유어이고, 전자가 한자어이면, 후자도 한자어였다. 이들의 상호 관계는 다음과 같다.(최현배 1950: 86-91, 문교부 1962ㄴ)

(20) 문교부 제정 문법 용어표<sup>13)</sup>

- 1. 용어는 당분간, 한 개념에 대하여 순수한 우리말로 된 것과 한자음으로 된 것의 두가지로 정한다.
- 2. 문교부 검인정 도서는, 그중의 한가지를 일관성있게 쓸 것이며, 다른 한가지는 대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말소리와 글자

순수한 우리말

- 1. 말소리
- 2. 말소리갈

외 29개

한자음으로된말

- 음성
- 음성학

2. 임자씨(체언)

- 32. 씨
- 33. 씨갈

외 28개

- 품사
- 품사론

13) 이하에서 인용하는 자료들은 맞춤법이 한행 <한글 맞춤법>과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원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 3. 입자씨(체언)의 바뀔

62. 자리바꿈	격변화
63. 입자자리	주격
외 28개	

### 4. 풀이씨(용언)의 종류

92. 풀이씨	용언
93. 움직씨	동사
외 37개	

### 5. 풀이씨(용언)의 바뀔

131. 끝바꿈	어미변화
132. 때바꿈	용언활용
외 60개	

### 6. 매김씨(관형사)

193. 매김씨	관형사
194. 가리킴매김씨	지시관형사
외 5개	

### 7. 어찌씨(부사)

200. 어찌씨	부사
201. 가리킴어찌씨	지시부사
외 3개	

8. 이음씨(접속사)

205. 이음씨

접속사

206. 나란히 이음씨

대결적 접속사

Coordinate Conjunction

외 2개

9. 토(조사)

209. 토(씨)

조사

(토를 씨로 볼 때는 “토씨”로 하고, “씨”로 안볼때에는 “토”라할 수 있다. “토”의 내용은—임자씨에 붙거나, 풀이씨에 붙거나 각기 체계에 따라정할것이며, 용어로서 그 체계를 구속하지 않는다.)

210. 앞토씨

전치사

Preposition

외 2개

10. 가지(접사)

213. 가지

접사

214. 앞가지

접두사

외 7개

11. 월(문장)

222. 월

문장

223. 월갈

문장론

외 43개

12. 월점(문장부호)

267. 월점

문장부호

268. 온점

종지부(.)

의 12개

## 13. 붙임

281. 말본

문법

282. 글말

문어

의 10개

당시 이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교부 1963ㄷ)

## (21) 술어에 대한 여론

순 우리말

1. 자주성의 강조
2. 뜻을 잡기 쉽다
3. 재 검토해서 우리말로 하자
4. 다른 술어와 균형을 가지게
5. 이해가 쉽다
6. 이중 부담을 방지하자
7. 국어의 순수성을 지키자
8. 장래와 2세를 위해서
9. 보편화 되었다

한자말

1. 기성인의 이해와 맞도록
2. 순 우리말에는 부자연한것이 있다.
3. 외국어 학습과 유기성을
4. 사회 일반서적과 관련
5. 돌려쓰기 편하다
6. 한자어는 이미 우리말이다
7. 보편성이 넓다
8. 이해가 빠르다
9. 이중 부담 방지하자
10. 이미 익었다
11. 한자말 사용하고 있다
12. 순우리말로 일관하기 어렵다
13. 현재의 언어 사실이다
14. 간편하다

그 전까지 공평하게 쓰였던 것이 전문위원회의 결정 이후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문교부 1964:10-14)

(22) 문법 용어표

① 말소리

1. 울림소리
2. 안울림소리
3. 된소리
4. 거센소리
5. 혀옆소리
6. 굴림소리
7. 소리값
8. 첫소리
9. 속소리
10. 끝소리
11. 모음조화
12. 구개음화
13. 조음소
14. 음절

② 체언

15. 명사 외 한자어 28개

③ 체언의 종류

44. 격변화(Declension) 외 한자어 23개

④ 용언의 종류

68. 용언 외 한자어 38개

⑤ 용언의 변화

107. 어미변화 외 한자어 59개

## ⑥ 관형사

168. 관형사 외 한자어 6개

## ⑦ 부사

173. 부사 외 한자어 4개

## ⑧ 접속사 및 감탄사

180. 접속사 외 한자어 3개

## ⑨ 조사

184. 조사 외 한자어 2개

## ⑩ 접사 및 기타

187. 접사 외 7개

## ⑪ 문장

195. 문장 외 한자어 44개

## ⑫ 문장부호

240. 마침표 외 고유어 13개

이와 같은 문법 용어는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1964 ㄱ, ㄴ)에서 펴낸 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다만 문교부에서 지정한 용어 외에 고유어를 사용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1964 ㄱ:1-196)

- (23) 말, 소리말(음성언어=音聲言語), 글자말(문자언어=文字言語, 소리글자(표음문자=表音文字), 뜻글자(표의문자=表意文字), 당소리(자음=子音), 홀당소리(단자음=單子音), 겹당소리(複子音), 홀소리(모음=母音) 날숨, 된소리(경음=硬音), 겹글자, 홀홀소리, 겹홀소리, 소리값(음가=音價), 소리의 닳음, 소리의 꺼림, 소리의 즐임, 소리의 덧붙임, 양성모음(陽性母音=밝은홀소리), 음성모음(陰性母音=어두운홀소리), 입천장, 자음접변(당소리이어바

뽀, 모음조화(홀소리어울림), 이은소리(연음=連音), 긴 소리, 짧은 소리, 소리의 힘, 소리의 가락, 힘올림(Stress accent), 받침, 소리마디의 자리, 쉼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줄표, 따옴표, 묶음표

그 외에 “II. 단어와 품사, III. 문장의 성분” 등에는 한자어 용어를 사용했는데, 과도기여서인지 다음과 같이 고유어를 ( ) 안에 붙여 넣거나 일부를 고유어로 쓰기도 했다.(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1964:14-130)

- (24) 어근(語根=뿌리), 접사(가지), 단사(홀씨), 복합어(겉씨), 뜻(의미), 꼴(형태), 낱말, 일의 이름, 물건의 이름, 미룸 보조 형용사, 가진 문장, 나란히 문장, 이은 문장

또한 문교부 통일안에 따라 썼다는, 고창식·이명권·이병호(1965: 17-117)의 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5) 말, 말소리 [音聲] 글, 글자, 표준말, 높임말법 [敬語法], 높임말 [敬語], 낮춤말 [謙讓語], 예사말, 코안, 입술, 이, 웃잇몸, 센입천장, 여린 입천장, 혀, 목젖, 숨통(氣管), 밥줄(食道), 입안, 혀뿌리, 혀바닥, 혀끝, 울림소리 [有聲音; 흐린소리,濁音], 안울림소리 [無聲音, 맑은 소리, 淸音], 소리의 겹침, 단음, 반단음, 반열, 열, 양순음(兩脣音, 입술소리), 설단음(舌端音, 혀끝소리), 설면음(舌面音, 혀바닥소리), 설근음(舌根音, 혀뿌리소리), 성문음(聲門音, 목구멍소리), 파열음(破裂音, 터짐소리, 날숨, 마찰음(摩擦音, 갈림소리), 파찰음(破擦音, 터짐갈림소리), 콧소리(通鼻音, 콧소리), 굴림소리(振動音, 舌端音), 혀옆소리(舌側音, 側音), 예사소리 [平音], 뒸소리 [硬音, 濃音], 거센소리 [激音, 氣音] 예사말, 센말, 거센말, 하나받침, 둘받침, 셋받침, 소리의 달라짐, 소리의 닳음, 소리의 꺼림, 끝소리의 달라짐, 소리의 닳음, 받침규칙, 뜻(意味, meaning), 꼴(形態, form), 높임의 등분, 해라체(하라체), 하계체(하네체), 하오체(하오체), 하시오체(합나다체), 하소서체(하나이다체), 반달체(하여체), 뜻가짐, 부름, 덧붙임, 끝남, 미침, 한결, 어림, 마찬가지



한편 이른바 통합 문법(문교부 1985)이라는 교과서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 (26) 말, 글, 글자, 말소리, 옛말, 띄어쓰기, 뜻, 갈래, 자릿수, 관형어의 겹침, 높임, 낮춤, 높임법,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낮춤법, 해라체, 아주 낮춤, 하계체, 예사 낮춤, 해체, 하오체, 예사 높임, 합쇼체, 아주 높임, 해요체, 높임말, 낮춤말,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이어진 문장, 안김, 안음, 안은 문장, 안긴 문장, 홑문장, 겹문장, 이야기, 말하는 이, 말 듣는 이, 물음, 코안, 입술, 이, 윗잇몸, 목젢, 혀끝, 혀바닥, 혀뒤, 혀뿌리, 울대마개, 목청, 울림소리, 안울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소리를 내는 자리, 소리를 내는 방법, 소리의 길이, 긴소리, 짧은소리, 음절 끝소리, 된소리되기, 사잇소리

현재도 쓰이고 있는 고등학교용 <문법> 교과서(교육 인적 자원부 2004)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 (27)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림 문자, 목청, 울대마개, 목안, 코안, 입안, 입술,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혀의 앞뒤,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울림소리, 안울림소리, 소리의 길이, 가운데소리, 첫소리, 끝소리, 끝소리 규칙, 사잇소리, 새말, 문장의 짜임,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홑문장, 겹문장, 이어진 문장, 안긴 문장, 안은 문장, 높임 표현, 높임법,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직접 높임, 간접 높임, 객체 높임법,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반말),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이야기, 말하는이, 듣는 이, 이야기의 짜임, 한글 맞춤법, 어법대로 적기, 소리대로 적기

용어 통일 이후 집필자들은 문교부 방안을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론이 달라지고 필자들이 바뀔에 따라 약간의 동요가 생기었음을 알 수 있다.

### 2.2.1. 용어의 통일에 대한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법 용어가 결정되기 전·후에 각종 매스컴이나 학회에서는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시끄러웠다.<sup>14)</sup> 먼저 그 경과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28) 말본, 문법, 對決 15年 다시 붙은 불꽃, 말본과 문법(文法)의 대결 15년—우리나라말의 문법용어를 고유한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쓰기편한 한자식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좀처럼 통일을 이루지 못해 문법을 배우는 학생들은 2중으로 문법용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고통을 받고 있다.”(朝鮮日報, 1963.5.23.)

(29) 學校文法統一案 채택 보류=文敎部교육과정 審議會議=「말본」派서退場으로 流會, 未備·모순點 많아, 다시 部分的으로 檢討(서울신문 1963.6.5.)

(30) <「文法論爭」發端과經緯>-「한글간소화」是非이래 가장 커다란 논쟁으로 번져가고있는 「文法論爭」은 그뿌리가 깊다. 지금中高敎에서 쓰이고있는 國語文法敎科書가 저마다 다르고 또저자에 따라 用語및學說의 차이가있었기 때문에 一線敎師들은이미 오래전부터 學校文法의 統一을 당국에 호소해왔다.(중략) 이같은 끈덕진論爭이벌어지는 가운데 지난4일 「學校文法專門委」의 假案이 國語敎育課程審議會에 上程되었으나 퇴장하는 委員이 많아 流會되다시피 했으며 10日(月)에 다시모이기로 되어있다. 國語敎育課程審議會의 결의를 거치게되면 長·次官이 最終決定을 내리는데 과연어떤妙案이 나올는지 궁금하다. (東亞日報 1963.6.8.)

14) 이에 대하여 한글학회(1971:376-417)에 잘 정리되어 있고, 김석득(2000:124-126)에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되어 있다. 필자가 이를 다시 정리하는 것은 당시에 이토록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던 것을 어떻게 정부에서 밀어붙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함이다.

15) 인용문의 ‘떨어 쓰기’는 원문대로 한다. 이하 모두 같다.

또한 그런 혼란에 대하여 걱정하는 다음과 기사도 보인다.

- (31) <메아리>(상략) ◆…오늘 우리의 한글學界는 「말본」이나「文法」이야의 論爭을 둘러싸고 벌집을 쑤서놓은듯 시끌썩하다. 十八年을 두고 떠들썩하던 論爭을 八對七의 投票로써 結판을 내려한다니 한심하다. 어느쪽이 옳고 그르냐는것은 굳이 따지고싶지않다. 다만 學術論爭을 그토록 간단히 투표로써 결정할수있으며, 결정했다고 그대로 통용되겠느냐하는點에 의문이 크다. 그나마 단순한 「말본」 혹은 文法의 몇가지 「術語」를 둘러싼 論爭에 그토록 귀중한 정력과 시간을 소비한한다는것도 이해키 어렵다. ◆…그보다 더큰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느껴진다. 가령 언젠가는 실현되어야할 한글 專用문제—그 前提가 되어야할 漢字語의 알기쉬운 우리말화, 한글體系의 整理와 그機械化普及, 外來語의 混亂止揚과純化등 當面 課題는 山 더미처럼 쌓여있지않은가.(한국일보 1963.5.31.)

다음에는 먼저 한자어로 품사와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 견해를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1963년 5월13일에 보도된 신문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32) 朴種和 金八峰 趙芝薰 毛允淑씨등 79명의 저명한 소설가 시인 언론인들은 31일 상오문교부의 「학교문법위원회」에서 국어문법용어 대부분을 한문식용어로 정하기로 한것은 시대의 역행, 문화의 후퇴를 의미하는것이라고 지적, 이를 시정해줄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이들은 이건의문에서 한문식용어가 그대로 실행된다면 고하거반세기이상 민족적 한글운동의 기본정신의 표현으로 길러온 우리말식 문법용어를 폐지하고 젊은 학생들에게 일본식 한자용어를 강요하는듯이 될뿐아니라 모든학과목과 사회각 방면에서 불꽃같이 일어나고있는 우리말 애용 자주 문화창조의 운동을 꺾는결과를 가져올것이라고 말했다. 79명인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경향 신문 1963. 5. 13.)

이 기사로 보면, 많은 문예인, 문화인, 언론인 등이 당시 문교부의 한문

식 용어로 통일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개별적으로 쓴 다음과 같은 글들이 보인다.

- (33) 국어품사의 이름과 분류-심의회의 결의를 보고-, 익혀진 순한글식 버리고 왜 한문음을 써야 하나, 분류에도 체계와 균형잃어(上)(鄭寅燮, 한국일보 1963.5.21.)
- (34) 국어품사의 이름과 분류-심의회의 결의를 보고-, 體言의 「토」를獨立品詞로 다루는 것은 커다란 矛盾”(下)(鄭寅燮, 한국일보 1963.5.22.)
- (35) 학교문법통일 시비(二), 말은 自然發生 아니다, ‘18년이나 골탕먹인건 누군가 ‘漢字用 語는 거의 日本투(최현배 1963.5.23. 한국일보)
- (36) 文法論爭,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上), 학술을 권력으로 통제할수없다, 「씨」란말「御製訓民正音」번역본에나와, 투표로 결정함은 언어도단 (김윤경 1963.5.28. 東亞日報)
- (37) 文法論爭,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下), 이어받아야할 「한글정신」, 「名詞」, 「動詞」등의 術語도 사람이만든것, 국가 만년대계를 위해 쉬운말로(김윤경 1963.5.29. 東亞日報)
- (38) 학교문법통일 是非……一線教師로서……, 文教部案 改惡 우려있다, 學生은 순 우리말 익숙(金桂坤 1963.5.30. 한국일보)
- (39) 教授論壇 ‘학술용어는우리말본위로-도저히 참을수 없어…’(안호상 1963. 6.1. 경향신문)

다음은 한자어로 품사 및 용어를 통일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에서 쓴 글을 살펴 보자.

- (40) 文法論爭, 許雄·鄭寅燮教授의 글을보고, 疑問에 대한 解明, 批判에 대한 對答, 「이름씨」, 「움직씨」 등의 述語는 造語에 不過하다, 「씨」란 말의 語源조차도 不分明“(上)(金亨奎 1963.5.24. 東亞日報 )
- (41) 漢字音은 이미 韓國化된 것, 마치 韓末의 開國과 鎖國의 兩論, 偏狹하고 固陋한 생각은 버리도록(下)(金亨奎 1963.5.25. 東亞日報)
- (42) 學校文法統一是非(三), 어렵고 까다로운 「말본」, 「순수한우리말도아니고」 (南廣祐 1963.5.28. 한국일보)
- (43) <社說> 學校文法 統一문제는 解決된 것이다.-一部學者들의 固執은 不當-(경향신문 1963. 6.20.)
- (44) 學校文統一是非(一), 18년째 學生만 골탕 ‘우리이름도 풀어쓸생각인가’ ‘한글학회內에도 異論(李熙昇 1963.5.21. 한국일보)
- (45) 文法論爭, 言語現實이란 理想만으론 解決안된다(上), 「씨」는 品詞와는 다른말, 名詞·動詞라해도 나라는망하지않는다, 造作語는 共感을 얻지못해 (金敏洙 1963.6.5. 東亞日報)
- (46) 文法論爭, 言語現實이란 理想만으론 解決안된다(下), 國粹의 思考는 自殺行爲, 異論百出의 學術따르면 統一은不能, 個人的綴字法의고집은 公約의 違反(金敏洙 1963.6.6. 東亞日報)
- (47) 學者들의 「文法論爭」을읽고, 學者들研究·討論은別途로, 우선學校文法統一, 教育面의 混亂解消위해時急(郭種元 1963.6.8. 東亞日報)

한편 언론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 (48) 「이름씨」나 「名詞」나, 거듭되는 입씨름, =”우리文法은우리말로“崔氏側

主張 統一 위한 陣痛인가 = “二重用語를必要없다”李氏側主張(조선일보 1963.6.5.)

- (49) 피흘리며 이어온運動 表決에 글힐수없다(최현배 1963.5.18. 경향신문)  
衆意아닌 聲明우습다 새말은 自然發生的인것(이희승 1963.5.18. 경향신문)

한편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투쟁을 벌였는데, 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963년 5월 16일자 한글학회의 ‘성명서’에서는 “1. 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여부, 2. 국어 운동의 역사적 정신을 파괴해서는 안 됨, 3. 두 갈래 용어의 보급 현황이 고려 되어야 함, 4. 위원회 회의의 결과가 근본 목적에 위배됨, 5. 용어 문제는 국책으로 정할 일임”을 지적하였다.

1963년 2월 2일에 국어국문학회에서는 “中高校國語教科書國定解除와 學校文法統一에關한建議書”를 낸 바 있다. 또한 1963년 5월 31일자 국어국문학회에서는 “학교 문법통일문제에 대한 성명서”에서 (1) 학교 문법통일은 긴급하다 (2) 문법용어의 통일문제 ① ‘이름씨’식 용어에는 억지가 많다 ② 문법, 명사 등은 우리말이다 ③ 문법, 명사 등은 일본말이 아니다 ④ 말본, 이름씨로 해야 애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문법 체계의 통일 문제“를 들었다.

“1963년 6월 일”로 된 “학교문법 통일에 관한 건의서”에서는 “(1) 한자어도 우리말이다 (2) 문화와 학문에 관한 술어가 거의 한자어로 되어 있다 (3) 한자식 문법 용어는 일본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다 (4) 한자어는 애국심을 손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 건의서에는 언론인, 교수, 문화인, 학자, 중고교교사 등 950명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되어,<sup>16)</sup> 1966년 11월 25일 자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sup>17)</sup> 문교부가 다시 통일안 이전의 방안으로 되돌리기

16) 이른바 ‘전문 위원회’의 결정 이후 1967년까지의 이에 대한 찬·반 논란과 정치적 파동에 대하여는 한글학회(1971:378-417)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17) 『國語文法の 混亂』- 文敎部는 앞으로 發行될 國語文法教科書에 종래의學校文

로 했다는 것과 그것을 국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안의 체계에 의하여 1966년에 중등 문법서가, 1968년에 고등 문법서가 나왔다고는 하나, 품사 설정이나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었고(고영근 · 남기심 1993:430-431), 이른바 ‘제2차 통일문법 김인정

---

法統一案을 原則으로하되 또다른 하나의 學說도 並用하도록 決定하였다고한다. 주로 文法用語가 是非의 中心이 되어 대체로 두갈래의 主張이 對立되어 오던바 이 두 갈래 主張을 다 並用한다는 것이 文敎部の 決定이다. 이에 의하면 母音은 母音도되고 「홀소리」도 되며 名詞는 名詞도 되고 「이름씨」도 된다. 또 우리 말 品詞는 9個도 되고 10個도 되는 것이다.

우리 文法은 從前에 異說이 紛紛하여 서로 자기의 主張을 굽히지 않아學習途上의 學童들에게 적지 않은 混亂을 주었고, 이를 止揚하기 위해서 지난61年 著名韓國語學者16名으로學校文法審議會를 構成하여3年 後인 63年 7月 現行學校文法統一案이 마련되어 이를 實施하여왔다. 일단 決定된 뒤에도 자기의 主張을 앞세워 說往說來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記憶하고 있거니와 이것은 자기 學說의 正當性을 確信하는 學者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 是非를 따질 興味를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國家가 教育上 必要해서 混亂에서 統一을찾고, 그統一된 것을 3年 이나 實施하여오다가 一朝에 統一을 버리고 混亂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駭怪하기 그지없는 處事가 아닐수없다.

報道에 의하면 國會文公委員 몇몇 사람이 主張하여 이混亂에의 復歸를 強要하였다고 한다. 또 文敎部長官은 文公委員들의 이 말도 안되는 主張을 받아들여 國語教育의 混亂에 公同步調를취하고 나섰다니 眞實로 하눌 아래 돌도 없는 國會議員에 文敎部長官이다. 행여 新年度 豫算案과 바터 했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다. 이것이 一時的便法 으로 바터의 對象이 될 性質의 問題인가. 어처구니없는 沒常識의 所致다.

우리는 여기서 어느 說이 옳고 그른 것을 論 할 意思는 없다. 問題는 國會議員과 長官의 生態에 있다. 생각해 보라. 國會議員이 學說을 左之右之하고 教科書의 內容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버릇은 어디서 생겼으며 또 그것이 國會議員의 職分에 屬하는 일인가. 한걸음 나아가 이 말도 안되는 臆설을 그대로 받아들여 全國數百萬學童들에게 混亂을 強要하는데 同調하는 長官의 所信은 무엇인가. 所信이라는 말이 流行語처럼된 昨今에 이렇게 所信없는 處事도 드물 것이다.

더구나 兩說이 엇갈려서 問題되는 部分은 入學試驗에 出題하지말라는 指示까지 내릴것이라고한다. 無定見의 極致라고할밖에없다. 國民의 血稅로 維持되는 國家機關에서 國事를맡은 人事들이 이런式으로 일을處理하는 것은 私的인 去來라는 指彈을 免할일이없을것이요, 一種의 兒戲에 틀림없다. 國事は 장난이 아니다. 猛省을 促求하여마지않는다.(東亞日報 1966.11.25.)

시대(1979~1984)'(고영근·남기심 1993:439-440)에 나온 교과서들은 철저하게 통일안에 따랐으며, 이어 1985년에 이른바 통일문법이 나왔다.

현재 학교 문법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고할 여지가 있다.

첫째, 학교 문법 용어와 같은 중요한 문제가 소수 학자들에 의하여 표결된 것은 객관성이 적다.

둘째, 사회적으로도 많은 반대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시대적·정치적인 면에서 공평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었다.

셋째, 문장론의 용어는 한자어를 쓰고, 음성·음운론과 문장부호 등은 고유어를 쓰도록 한 것은 진정한 문법 용어의 통일이 아니다.

넷째, 전산기, 손전화 등 과학 기기가 발달하고, 피교육자들이 한자어를 잘 쓰지 않는 요즘, 유독 문법 용어만 어려운 한자어를, 그것도 한국어의 특성에 잘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다섯째, 현행 <문법>교과서에서도 제정 당시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면이 있다.

### 3. 맺는 말

이상에서 학교 문법의 품사 체계와 명칭, 문법 용어의 결정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문법이 서양의 문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 분류와 명칭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주시경(1910) 이후로 대다수 한국어 문법학자들은 첨가어로서의 한국어의 특질에 맞는 품사의 설정과 고유한 명칭을 붙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최현배(1937)에 의하여 주시경 등이 붙였던 한 글자로 된 품사 명칭은 고유한 두 글자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주시경 등의 이른바 분석적 방법에 의한 품사 분류는 최현배(1937)에 의하여 이른바 준종합적 방법으로 바뀌었고, 정열모(1946)에 의하여



종합적 방법도 나타났다.

둘째, 광복 이후 국가에서는 1949년에 고유어와 한자어로 품사의 이름을 붙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56년에 나온 각종 학교 문법에서도 고유어와 한자어로 된 품사 이름과 용어가 대등하게 사용되었다. 학교 문법의 품사 분류도 상기한 세 가지 방법이 자유롭게 적용되었다.

셋째, 1963년에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어의 품사 분류와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문교부 주체로 국어교육과정 심의회 산하 학교문법통일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많은 시간과 인력을 동원하여 마침내 결정을 보았다. 그러나 학자들은 물론 언론과 학계, 문화계 등에서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급기야 1966년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되어 1963년의 결정을 무효화하려 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1985년의 이른바 통합 문법을 거쳐 현재까지 1963년의 원칙 아래 문법 교과서가 집필되었다.

필자는 1963년 당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표결의 과정, 그리고 결과를 자료에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유어와 한자어의 지지자들은 양심, 혹은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했기 때문에 그 잘, 잘못으로 구분한다든지, 누가 누구를 배반했다는 식의 평가는 옳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문법을 가르치게 해야 할 것임을 밝힌다.

첫째, 1963년 당시 이른바 전문위원회의 구성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에 대하여 재론의 여지가 있다.

둘째, 당시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지극히 위압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

셋째, 당시에는 한자를 많이 배운 세대가 모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나, 이미 반세기가 지나 현재는 한글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한글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은 한자식 용어를 잘 몰라 오히려 용어를 해석해 주어야 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예컨대 ‘명사’라고 하면, 그 뜻을 알 수 없어, 다시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해 주어야 하니 문제다.

넷째, 현재 학교 문법은 당시의 품사 분류는 물론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달라진 바가 있으므로, 모순 된 점과 잘못 된 점은 바로 잡아야 할 시점에 와있다.

다섯째, 당시에 결정하였던 소리에 관한 부분은 우리말로, 품사론과 문장론에 관 부분은 한자어로 한다는 것도 많은 부분 혼용되고 있으니, 이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제 새로운 학설과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서라도 제8차 문법 교과서는 검인정으로 바뀌므로 자유롭게 편성되어야 한다.

**핵심어 : 학교 문법, 문법 용어, 품사 설정**

## 참고 문헌

- 고영근(2005), <國語學研究史>, 서울:學研社.
- 고영근·남기심(1993),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塔出版社.
- 고창식·이명권·이병호(1965), <학교 문법 해설서-문교부 통일안에 따른->, 歷代韓國文法大系 第Ⅰ部 第38冊, 1104, 金敏洙·河東鎬·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교육 인적 자원부(2002), <고등 학교 문법>, 서울:교육 인적 자원부.
- 김근수(1947), <中學 國文法 책>, 歷代韓國文法大界 第Ⅰ部 第28冊, 1171, 金敏洙·河東鎬·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김민수(1960), <國語文法論 研究>, 歷代韓國文法大系 第Ⅰ部 第37冊 1198, 金敏洙·河東鎬·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김민수·남광우·유창돈·허웅(1960ㄱ), <새 중학 문법>, 歷代韓國文法大界 第Ⅰ部 第36冊, 1195, 金敏洙·河東鎬·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김민수·남광우·유창돈·허웅(1960ㄴ), <새 고교 문법>, 歷代韓國文法大界 第Ⅰ

- 部 第36冊, ㉑96, 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김석득(1983), <우리말 연구사>, 서울:정음문화사.
- \_\_\_\_\_(2000), <외솔 최현배 학문과 사상>,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 문교부(1964), <편수 자료> 5집, 서울:문교부.
- 문교부(1985), <고등 학교 문법>, 서울:문교부.
- 박태운(1948), <중등 국어문법>, 歷代韓國文法大界 第㉑部 第28冊, ㉑73, 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_\_\_\_\_(1956), <표준 중등 말본>, 歷代韓國文法大界 第㉑部 第31冊, ㉑81, 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박창해(1946), <쉬운 조선말본>, 歷代韓國文法大界 第㉑部 第26冊, ㉑65, 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이승녕(1956ㄱ), <중등 국어문법>, 歷代韓國文法大界 第㉑部 第34冊, ㉑89, 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_\_\_\_\_(1956ㄴ), <고등 국어 문법>, 歷代韓國文法大界 第㉑部 第34冊, ㉑90, 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李崇寧(1960), <고등 국어문법 개정판>, 歷代韓國文法大系, 第㉑部 第42冊, ㉑121, 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이인모(1949), <재미나고 쉬운 새 조선 말본>, 歷代韓國文法大界 第㉑部 第30冊, ㉑77, 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이영철(1948), <중등 국어 문법>, 歷代韓國文法大界 第㉑部 第30冊, ㉑78, 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이희승(1949), <중등 학교 국어과 초급 국어 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 第㉑部 第32冊, ㉑85, 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_\_\_\_\_(1956), <중등학교 국어과 중등 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 第㉑部 第32冊, ㉑86, 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장하일(1947), <중등 새말본>, 歷代韓國文法大系 第㉑部 第29冊 ㉑74, 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_\_\_\_\_(1949), <문교부 인정필 표준말본> 1-2, 歷代韓國文法大系 第㉑部 第29冊 ㉑75, 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_\_\_\_\_(1949), <문교부 인정필 표준말본> 3, 歷代韓國文法大系 第㉑部 第四冊, ㉑76, 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周時經(1910), <國語文法>, 歷代韓國文法大系 第㉑部 第4冊, 金敏洙 · 河東鎬 · 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_\_\_\_\_(1913), <朝鮮語文法>, 歷代韓國文法大系 第Ⅰ部 第4冊 Ⅰ12, 金敏洙·河東鎬·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최태호(1957), <중학말본>Ⅰ, 歷代韓國文法大系 第Ⅰ部 第35冊, Ⅰ92, 金敏洙·河東鎬·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_\_\_\_\_(1957), <중학말본>Ⅱ, 歷代韓國文法大系, 第Ⅰ部 第35冊, Ⅰ93 金敏洙·河東鎬·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_\_\_\_\_(1957), <중학말본>Ⅲ, 歷代韓國文法大界 第Ⅰ部 第35冊, Ⅰ94, 金敏洙·河東鎬·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최현배(1950), 중등 말본, 서울:정음사.
- \_\_\_\_\_(1947), 중등조선말본, 서울:정음사.
- \_\_\_\_\_(1982), <우리말본>, 서울:정음사.
- \_\_\_\_\_(1999), 한글만 쓰기의 주장, 서울:정음문화사.
- 한국국어교육연구회(1964), <문교부 학교통일에 따른 중학 국문법>, 歷代韓國文法大系 第Ⅰ部 第38冊 Ⅰ102, 金敏洙·河東鎬·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_\_\_\_\_(1964), <문교부 학교문법 통일에 따른 고등 국문법>, 歷代韓國文法大界系 第Ⅰ部 第38冊, Ⅰ103, 金敏洙·河東鎬·高永根 편, 서울:塔出版社.
- 한글학회(1971), 한글학회50년사, 서울:한글학회.
- 허웅(1993), <최현배>, 서울:동아출판사.

## 자료

- 문교부(1962ㄱ), 중·고등 학교 국어 문법 지도 지침(유인물), 서울:문교부.
- 문교부 1962ㄴ), “문교부 제정 문법 용어표” 미간행물, 서울:문교부.
- 문교부(1963ㄱ), “소위원회 보고 사항” 미간행물, 서울:문교부.
- 문교부(1963ㄴ), “학교 문법 통일을 위한 경과 보고서” 미간행물, 서울:문교부.
- 문교부(1963ㄷ), “술어에 대한 여론” 미간행물, 서울:문교부.
- 문교부(1964), “중·고등학교 학교 문법의 통일,” 편수 자료 5집, 서울:문교부.
- 최현배(1963. 5. 18.), “피흘리며 이어온運動 表決에 글힐수없다,”(경향신문 1963.5.18.)
- 이희승(1963. 5. 18.), “衆意아닌 聲明우습다 새말은 自然發生的인것,”(경향신문 1963. 5.18.)

한글학회(1963. 5. 16.), “성명서”

국어국문학회(1963. 2. 2.), “中高校國語教科書國定解除와 學校文法統一에關한建議書”

\_\_\_\_\_ (1963. 5. 31.), “학교 문법통일문제에 대한 성명서”鄭寅燮(1960.5.21.), “국어품사의 이름과 분류-심의회의 결의를 보고-, 익혀진 순한글식 버리고 왜 한문을 써야 하나, 분류에도 체계와 균형있어(上)”(한국일보 1963.5.21.)

\_\_\_\_\_ (1963. 5. 22.), “국어품사의 이름과 분류-심의회의 결의를 보고-, 體言의 「토」를 獨立品詞로 다루는 것은 커다란 矛盾”(下)(한국일보 1963.5.22.)

최현배(1963. 5. 23.), “학교문법통일 시비(二), 말은 自然發生 아니다, ‘18년이나 골탕 먹인건 누군가’ 漢字用語는 거의 日本투,”(한국일보 1963.5.23.)

김윤경(1963. 5. 28.), “文法論爭,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上), 학술을 권력으로 통제할 수 없다, 「씨」란말「御製 訓民正音」번역본에나와, 투표로 결정함은 언어도단,” 東亞日報 1963.5.28.)

\_\_\_\_\_ (1963. 5. 29.), “文法論爭,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下), 이어받아야할 「한글정신」, 「名詞」, 「動詞」등의 術語도 사람이만든것, 국가 만년대계를 위해 쉬운 말로(東亞日報 1963.5.29.)

金桂坤(1963. 5. 30.), “학교문법통일 是非……一線教師로서……, 文教部案 改惡 우려 있다, 學生은 순 우리말 익숙,”(한국일보 1963.5.30.)

안호상(1963. 5. 30.), “教授論壇 ‘학술용어는우리말본위로-도저히 참을수 없어…’,”(경향신문 1963.6.1.)

金亨奎(1963. 5. 24.), “文法論爭, 許雄·鄭寅燮教授의 글을보고, 疑問에 대한 解明, 批判에 대한 對答, 「이름씨」「움직씨」等の述語는 造語에 不過하다, 「씨」란 말의 語源조차도 不分明,”(上)(東亞日報 1963.5.24.)

\_\_\_\_\_ (1963. 5. 25.), “漢字音은 이미 韓國化된 것, 마치 韓末의 開國과 鎖國의兩論, 偏狹하고 固陋한 생각은 버리도록(下)(東亞日報 1963.5.25.)

南廣祐(1963. 5. 28.), “學校文法統一是非(三), 어렵고 까다로운 「말본」, 「순수한우리 말도아니고」(한국일보 1963.5.28.)

李熙昇(1963. 5. 21.), “學校文統一是非(一), 18년째 學生만 골탕 ‘우리이름도 풀어쓸 생각인가’ ‘한글학회내에도 異論’,”(한국일보 1963.5.21.)

金敏洙(1963. 6. 5.), “文法論爭, 言語現實이란 理想만으론 解決안된다(上), 「씨」는品詞와는 다른말, 名詞·動詞라해도 나라는망하지않는다, 造作語는 共感을 얻지 못해,”(東亞日報 1963.6.5.)

\_\_\_\_\_ (1963. 6. 5.), “文法論爭, 言語現實이란 理想만으론 解決안된다(下), 國粹의思考는 自殺行爲, 異論百出의學術따르면 統一은不能, 個人的綴字法의고집은 公

約의 違反,”(東亞日報 1963.6.6.)

郭種元(1963. 6. 8.), “學者들의 「文法論爭」을 읽고, 學者들研究·討論은別途로, 우선 學校文法統一, 敎育面의 混亂解消위해時急(東亞日報 1963 6.8.)

‘기사’ (경향 신문 1963. 5. 13.)

“말본, 문법, 對決 15年 다시 붙은 불꽃, 말본과 문법(文法)의 대결 15년—,”(朝鮮日報, 1963.5.23.)

“<메아리>”(한국일보 1963.5.31.)

“「이름씨」나 「名詞」나, 거듭되는 입씨름, =”우리文法은우리말로“崔氏側 主張 統一 위한 陣痛인가 =“二重用語 쓸必要없다”李氏側主張,“(조선일보 1963.6.5.)

“學校文法統一案 채택 보류=文敎部敎育과정 審議會議=「말본」派서退場으로 流會, 未備·모순點 많아, 다시 部分的으로 檢討,”(서울신문 1963.6.5.)

“「文法論爭」發端과經緯>-,”(東亞日報 1963.6.8.)

“<社說> 學校文法 統一문제는 解決된 것이다.-一部學者들의 固執은 不當-,”(경향신문 1963. 6.20.)

東亞日報社(1966. 11. 25.), “社說”

성낙수

소속: 한국교원대학교

주소: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 7번지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과학관 215호

전화: 043-230-3501

전자우편: sung-ns@hanmail.net

투고일: 2010.3.31

심사일: 2010.6.1~6.14

게재 결정: 2010.6.20

## Abstract

### **A Decision Making Process and Related Problems with Regard to the Establishment of Parts of speech and Terms in School Grammar**

Seong, Nackso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dissertation has it as the purpose to review a decision making process with regard to parts of speech system, naming and grammar terms.

Given the fact that Korean grammar was to be affected by Western grammar, classification and naming have not been excluded from it. Most of Korean grammarians have tried to establish parts of speech appropriate to Korean language feature and supply proper nominations since ShiKyoung Joo in 1910. Specifically, HyunBae Choi changed one-letter nomenclature, which was done by ShiKyoung Joo, into proper two-letter one. Parts of speech that was classified in analytical method by ShiKyoung Joo has been supplanted by HyunBae Choi's pseudo-synthetic method, and then synthetic method was offered by YollMo Jung.

After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ese, in 1949 pure Korean language and borrowed language from China were supposed to be used in naming parts of speech. It is detectable that pure Korean language and borrowed language from China were used equally in various school grammar issued in 1956 and that three methods mentioned above were applied in classifying parts of speech without restrictions.

In 1963, Education Department set up Spec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of School Grammar under Korean Language Curriculum Committee in

order to give unity in the classification of parts of speech and terms in a national level, reaching to a decision by the investment of time and human resource. However, controversy kept going on with people divided to pro and against the decision in journalism, academic world and culture-related area as well as scholars. The legislators in 1966 made attempts to repeal the decision of 1963 but failed.

Grammar textbooks have been written under the principle of 1963 as well as what so called synthetic grammar in 1985.

I could find out arguments, the process of voting and the result, which were dealt in the Spec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of School Grammar back then, through research materials. The fact does not count that who were supporters for the use of pure Korean language and borrowed language from China. However, I suggest that appropriate grammar should be taught to the next gener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is necessary to question the objectiveness and fairness in selecting members for the Spec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of School Grammar with regard to their qualifications for it in 1963.

Second, the political and social atmosphere was authoritative and not democratic.

Third, the main stream of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positions at that time was led by the generation who had learned Chinese letters but now after 50years from that time, Hangul generation leads the main stream. Ironically, it has happened that students ne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borrowed letters from China before knowing the term for grammar in borrowed Chinese letters. For instance, as students do not know the meaning of ‘myongsa’, which give rise to a problem, teachers have to interpret it to students as “the word for referring to names”.



Fourth, the present school grammar is a lot different from the one of that time in theoretical aspects so now is the time to make corrections of contradictory and wrong items.

Fifth, the decision made at that time such as pure Korean language should be used in sound part and in turn, borrowed letters from China in parts of speech and syntax has not been kept consistently so it needs reconsideration.

Sixth, in accordance with new hypothesis and social atmosphere, it is necessary to allow freedom in making the 8th grammar textbook of which the approval system by government will be changed into “first making second examination”.

**Key words : school grammar, establishment of parts of speech, grammar terms, giving unity to parts of speech and terms**